

# 남원 광한루원, 공연·체험 '풍성'

11월 말까지 버스킹·7080 공연·전통놀이·한복 체험·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 진행

남원 광한루원은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곳으로, 이곳 안팎에서는 11월 말까지 펼쳐지는 판소리 여행으로 춘향이 살던 시대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어 예스러움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으며, 공연과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또한 광한루원 경의 상가와 어린이과학관 주변에서는 버스킹 공연이 진행, 통기타 가수의 7080 공연은 부모님 세대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월매집 주변에서 새롭게 진행되는 추억의 인절미 만들기, 그네뛰기 대회가 있다.

전통놀이 체험은 저포놀이, 투호, 비사만들기 등 11개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어,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추억을 일깨워주고, 광한루원 곳곳에서는 변사극 춘향전, 신관사포 부임행차, 마당극 황희를 말하다 등 여러 공연이 진행되며 한편의 연속극을 보듯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예천마당에서는 청사초롱 만들기, 노상 놀이, 나도 드라마 주인공 등을 진행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K-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입었던 한복을 체험할 수 있어 반응이 뜨겁다.



남원 광한루원에서 11월까지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가 열린다.

그 외에도 김병종미술관에서는 교육동 개관 기념을 위해 전시중인 김병종 화백의 대표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가수 조영남의 음악, 그림, 조각, 에세이 등 기획전을 통해 다양한

예술세계를 엿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화(620-8903, 8988, 5661)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가람이병기청년시문학상·최명희청년소설문학상 시상

각각 대학 부문 이형초·이성재  
고등 부문 이시우·여수아 수상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홍보기념사업회·최명희문학관이 공동 주관한 '2023 가람이병기청년시문학상과 최명희청년소설문학상' 수상자가 결정돼 14일 총장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이에 따르면 가람이병기청년시문학상 대학 부문에는 '미비동'을 쓴 이형초 학생(단국대 문예창작학과 4년)이, 고등 부문에는 '세면대 없는 목실'을 쓴 이시우 학생(인양고 1년)이 선정됐다.

또 최명희청년소설문학상 대학 부문에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쓴 이성재 학생(대진대 문헌정보학과 4년)이, 고등 부문에는 '우리의 별'을 쓴 여수아 학생(서울 17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이번 문학상에는 218명이 549편의 작품을 응모했다. 가람이병기청년시문학상에는 117명이 446편을, 최명희청년소설문학상에는 101명이 103편을 출품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심사는 가람이병기청년시문학상에 장창영·나혜경·이병초·김현수 위원이, 최명희청년소설문학상에 최기우·서철원·김소윤·박서진 위원이 각각 맡았다.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홍보기념사업회·최명희문학관이 공동 주관한 '2023 가람이병기청년시문학상과 최명희청년소설문학상' 수상자가 결정돼 14일 총장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가 글로벌대학 30 사업에 선정된 영광된 순간, 시상식을 갖게 돼 기쁘다"며 "전북대의 문화적 자부심인 '이병기'

시인과 '최명희' 소설가의 이름으로 발굴·육성되는 청년들이 세계적인 문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대회 대상 임사랑

'홍보가중 매품팔이 실패하고 탄식하는' 대목 열창 수상 영예

어린이 판소리 부문 최고의 등용문인 '제36회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에서 임사랑(목포 백련초 4년) 어린이가 '홍보가중 매품팔이 실패하고 탄식하는' 대목을 열창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차세대 어린이 판소리 명장을 발굴 육성하고 판소리 여섯바탕을 집대성하신 동리신재효선생의 문화예술사적 업적을 기념하며 유업을 계승하기 위해 고창군과 KBS전주방송총국이 공동주최하고 (사)동리문화사업회가 주관했다.

판소리 왕중왕을 가리는 이번 대회에는 지난 12일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36명의 꿈나무 소리꾼들이 고창 동리국악당 장내를 뜨겁게 달구어 7명이 본선에 올라 13일 고창문화의 전당에서 축하공연과 병행하여 KBS 녹화로 대회가 생중방에 끝났다.



대상을 받은 임사랑 어린이는 "처음 소리를 시작할 때부터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가 꿈의 무대였기에 최종 경연에 진출한 것이 가장 보람된 순간이다"며 "소리 하나로 사람들을 웃고 울게 만드는 명창이 되고 싶다"는 당찬 소년다.

/고창=김영식 기자

# 군산시립합창단 창립 40주년 기념 특별기획 연주회 '하모니'

군산시는 군산시립합창단 창립 40주년 기념 및 군산예술의전당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오는 16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군산시립합창단 '제74회 특별 기획 연주회 하모니'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합창이라는 공통의 관심으로 군산 시민과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시민 대상 오디션을 진행, 이를 통해 선발된 145명의 시민으로 프로젝트 합창단인 '하모니'를 구성했다.

6세 어린이부터 70대 장년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 직업의 시민들이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군산예술의전당에 모여 주광영 상임지휘자 지도 아래 파트와 개별연습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기획연주회는 군산시립합창단의 한

국 가곡 '내 맘의 강물', 한국 민요 '신고산 타령'을 시작으로 군산 시민 합창 연주자들이 함께 모여 감성적인 곡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명창 김금희와 함께하는 '홀로 아리랑' 등 풍성한 합창곡으로 아름다운 축제의 장이 될 예정이다.

군산시립예술단 김미정 단장(군산시 부시장)은 "군산시립합창단 창립 40주년을 축하하며 시민 연주자들과 함께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고 연주를 찾아주시는 시민들에게 기억에 남을 특별한 선물 같은 공연이 될 것이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전주문화재단, 전주신진예술가 선정작가 고지은·방우리 작품발표회

(재)전주문화재단(대표 이사 백옥선)은 서노송동 예술촌에서 2023년 전주신진예술가 지원 사업 선정작가 고지은 씨와 방우리 씨의 작품발표회를 갖는다

이에 따르면 먼저, 조각가 고지은 작가는 아트 실험실(Art Lab)이라는 콘셉트를 기반으로 한 설치 작품 전시로 관람객을 만난다. 'Art Lab:Incubating'을 제목으로 한 이번 전시는 상상과 실제의 경계에 내재된 혼종성과 다양성을 의외와 형상으로 드러낸다. 이번 전시는 14~19일까지 뽕밭의 미술관에서



고지은 조각가



방우리 소설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어 방우리 소설가는 첫 소설집 출간 계기와 집필 과정, 소설의 내용 등을 나누는 작품발표회 '그래도 우리의 나날'을 준비했다. 방우리 작가는 전주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의 최초의 문학 분야 선정자로, 등단작 '이시'와 4편의 미발표 작품을 수록한 단편소설집 '창문을 여는 일(가제)'을 내년 3월 발간한다. 작품발표회 '그래도 우리의 나날'이 21일 오후 2시 독립서점 물결서사에서 개최된다.

/장은성 기자

